

『日語讀本』과 『訂正普通學校學徒用國語讀本』에

나타난 공간 표현의 변화 考察

장미경* · 김순전**

mkjang1225@hanmail.net, sjkim77@chonnam.ac.kr

Contents

- I. 서론
- II. ‘日本語教科書’와 ‘地理’
- III. 空間의 移動 변화
- IV. 결론

Abstract

本稿では大韓帝國学部編纂の¹日語讀本、朝鮮總督府編纂の¹訂正普通學校學徒用國語讀本(以下:‘國語讀本’)の内容を分析して日帝の植民地政策が‘地理’に対する表現がどんなに表象されたのかを考察してみた。¹日語讀本は教育準備期に編纂されたし、¹國語讀本は無斷統治期に編纂された日本語の教科書である。

¹國語讀本₂で一番目立つ変化は国名の変化であった。日本を‘内地’で、独立国である‘韓国’を日本帝国の植民地であり、地方に過ぎない‘朝鮮’に変えたのである。それで日本と韓国を合わせて我が国に、清國は支那に国名が変わったのである。日本と韓国に対する領土の空間を内地と朝鮮に、台湾と樺太までを含んで領域の概念に入れ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のであった。

日本語の教科書の地名で一番大事な比重で使用されたのは東京であった。京城は植民地朝鮮の單なる地域として説明されたのに比べ、内地の東京は天皇の存在する日本の首都であり、人口数の比で京城と相対的に比較している。また挿畫を載せて、京城と東京の距離の移動を比べている。『日語讀本』にのせていない地名が¹國語讀本には具体的に明示されていた。¹日語讀本では‘日本と韓国’であったのを、¹國語讀本ではもっとも徹底的に植民地化された表現である‘内地と朝鮮’または‘内地と半島’のように、2個の国家が併合されて日本になった‘日本広報’に力を尽したのである。領土のことは主に挿繪を以て叙事したが、国土の擴張とともに世界の中で‘小さいけれど強い国’という叙事で日本を強調する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전공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근현대문학 전공/일본문화연구원 겸임연구원

ように変わったといえよう。

‘日語讀本’と‘國語讀本’にのせられた數の變化がみられるが、運賃が下がり、移動の時間が短くかかる。特に移動手段の増加で日本と韓国の距離と往來を短くて簡単なことに認知させようとした感じがする。即ち日本と韓国との移動が‘日語讀本’では國際線であったのに対し、‘國語讀本’では國內線の地方移動に変わったことを意味している。日本語の教科書で地理的表現が、‘接近’から‘強点期’に変化する過程で教育政策による表現の變化が一入目立つことがわかり、‘植民地朝鮮造り’のために日本語の教科書が大きい役目を果たしていること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

Key Words : 地理、空間、數、領域、國名

I. 서론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 만들기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교과서를 활용하였는데,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지배체제를 정비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하였다. 특히 1895년의 <소학교령>까지는 단순 외국어로 취급되던 일본어가, 통감부 설치 이후 독립된 교과로 선정되면서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중요 ‘외국어’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¹⁾ 1905년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설치한 대한제국의 학부는 보통학교 교과서 편찬작업에 착수하여 1906년에는 교과서 일부를 만들어 보통학교의 개시와 동시에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²⁾ 이에 따라 <교과용도서검정규정>(敎科用圖書檢定規程)을 제정하여 학생용과 교사용의 모든 교과용 도서는 우선 학부에서 편찬한 것으로 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는 학부편찬 교과서가 다소 한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 여겨, 식민자의 이념을 담은 교육과정 조직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 개편하게 된다.

‘일본어교과서’는 다양한 교과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종합교과서라고 할 수 있

-
- 1) 호사카 유우지(2002),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 제이앤씨, pp.95-98 참조.
 - 2) 학부가 편찬한 보통학교용 교과서는 1909년 5월 당시 『수신서』 4권, 『국어독본』 8권, 『한문독본』 4권, 『일본어독본』 8권, 『이과서(理科書)』 2권, 『도화독본(图画讀本)』 4권 등 총 7종 41권이였다. 이는 당시 보통학교 수업연한이 4년제로 1년에 두 권씩 이수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질 낮은 번역도서가 많고, 급조된 교과서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고 교육내용에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용 도서의 수는 증대하여 1910년까지 총 441종으로 늘어났다. (조연순 외(2002) 『한국근대초등교육의 발전』 교육과학사, p.79.)

다. 지리의 경우는 지리교과서가 없어 실제로 시간 수는 별도로 배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일본어교과서’에서, ‘地理’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지형적 배치의 양상이 변하는 공간의 이동은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地名, 國名, 領土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변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 의도와 정책, 당시의 세계정세의 흐름을 함께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되리라 여겨진다. 그러므로 학부와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일본어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선정되고 어떻게 변용 서술되었는가를 고찰하여 보는 것도, 조선을 식민지화해 가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조선교육 지배 준비기에 학부에서 편찬된 『普通學校學徒用 日語讀本』(8권)과 무단통치기에 조선총독부에서 편찬된 『訂正普通學校學徒用國語讀本』(8권)의 ‘일본어교과서’를 분석하여 일제의 ‘地理’ 교육이 ‘식민지 조선 만들기’에 어떻게 표상되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³⁾

II. ‘日本語教科書’와 ‘地理’

1904년 학부에 일본인 고문으로 시데하라(幣原坦)가 학정 참여관으로 부임했을 때부터 교육행정의 주도권은 일본인의 손으로 넘어갔고, 일본의 국가권력이 한국인의 교육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07년 출판한 『普通學校學徒用日語讀本』⁴⁾은 합방 이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 시절에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일본어교과서’이다. 『訂正普通學校學徒用國語讀本』은 1910년 합방 이후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가 다소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는 것이라 판단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1911년에 편찬된 것이다. 당시의 신문에서 교과서명이 바뀐 기사를 보겠다.

3) 『國語讀本』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朴英淑(2000) 「解題 第一期 『普通學校國語讀本』について」와 유철(2010) 「일제강점기 『국어독본』을 통해본 신체교육고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등이 있다.

4) 앞으로 본고에서는 『普通學校學徒用日語讀本』은 『일어독본』 또는 ①로, 『訂正普通學校學徒用國語讀本』은 『국어독본』 또는 ②로 약칭하겠다.

從來의 日語讀本은 國語讀本이라하고國語讀本은 諺文讀本이나 朝鮮讀本이라
改稱함은 勿論이오니基内容에此際에根柢부터改訂해야爲實業教育에 關한智識과
興味를添히야⁵⁾

여기에서 『일어독본』이 『국어독본』으로 바뀐 것은 “日語는 즉 國語이므로 本
書의 명칭을 빨리 변경해야 한다”는 내무부 학무국의 <字句訂正表>에 따랐기
때문이다.⁶⁾ 또한 일본어시간이 통감부기에는 주당 6시간에서 일제강점기에 들
어서면서 10시간으로 많아졌기에, 조선인에게는 ‘일본어교과서’가 큰 영향을 미
쳤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통감부기의 보통학교 교과목 과정에 지리가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
과서가 따로 편찬되지 않았다.⁷⁾

지리, 역사는 특별한 시간을 정의 아니하고 國語讀本 및 日語讀本에 所在한 바
로 教授하나니.⁸⁾

위의 인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교육 4개년이라는 단기간 동안에 역사와
지리를 별개 학과목으로 교수한다는 것은 경제상, 또는 교육상으로 보아 적당하
지 않으므로 이를 교과과정으로부터 제외할 의도에서 편찬하지 않은 것”⁹⁾이라
는 주장도 있다. 또한 『국어독본』의 편찬취의서에서 ‘지리에 관한 교재’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 지리의 개요를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가르치
고, 약간의 외국지리도 첨가했다. 우리나라 지리 중에 조선 지방에 관한 사항은
주로 조선어 및 한문독본에 기술함으로써 『국어독본』에는 단순히 그 개요를 가
르치는 것으로 했다.”라며 깊이 가르치려 하지 말고 개요 중심으로 단순하게 가
르치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역사와 지리에 대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
고 내용도 심화되지 못하도록 교육과정을 조절하였는데, 그것은 심화학습의 반

5) <매일신보>, 1910년 11월 2일, 2면.

6) 內務部學務編(1910) 『旧学部編纂普通学校用教科書並ニ旧学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図書ニ関
スル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 p.16.

7) 朴英淑(2000) 『解題 第一期 『普通学校国語讀本』について』에서 참조

8) <보통학교령, 1906>

9) 高橋浜吉(1927) 『朝鮮教育史考』京城、帝国地方行政学会, pp.168-172.

발로 항일애국사상을 고취시킬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 ‘일본어교과서’의 교재명, 편찬년도, 단원수, 地理 관련 내용의 빈도수

교재	학년	1	2	3	4	5	6	7	8
『日語讀本』(1907-1908)	단원	35	17	25	26	29	22	20	20
『訂正普通學校學徒用國語讀本』 (1911.3)	단원	39	28	25	26	30	22	18	20
지리 내용이 차지한 빈도수 (『일어독본』/『국어독본』)						4/4	3/3	7/5	6/7

<표 1>에서 본 것처럼 ‘일본어교과서’의 구성 내용에서,¹⁰⁾ 지리 부분이 저학년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조선 학생들에게 ‘지리’ 부분에 상당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며 본격적으로 식민지 교육을 시작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空間의 移動 變化

3.1. 國名의 강조

공간이란 지형적 배치의 양상이 변화된다는 것이기에,¹¹⁾ 공간의 이동은 식민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일본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영역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국명과 지명이 변화되는 요인을 만들기도 하였다. ‘일본어교과서’에서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공간 이동이 오래전부터 행해졌기에 현 상황의 당연성을 자연스럽게 제시하려고 하였다.

조선과 일본과의 교동을 시작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를 알 수 없습디만, 조선의 학자와 기술자들이 많이 일본으로 건너온 것은 대략 1600년 전

10) 『일어독본』의 2권 1이 『국어독본』 1권 36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①-2-1이 ②-1-36으로, ①-2-2가 ②-1-37로, ①-2-3이 ②-1-38로, ①-2-4는 ②-1-39로 되었다. 결국, ①-2-5는 ②-2-1로 시작되었다. 그 중에 권7이 가장 변화가 심했는데, 각과의 이동을 많이 하였다.

11) 이진경(2002) 『근대적·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p.267.

입니다. 그 때 조선은 일본보다도 먼저 개방이 되었기에 일본에서도 조선인을 초치하여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친 사람은 왕인이었습니다.¹²⁾ <①-7-5> 「日本과 支那와의 교통」

과거에는 중국과 조선을 통해 일본에 문화가 전해졌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른 일본의 발전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의 문화가 전달된 나라(奈良)에서도, 이제는 조선인이 세울 수 없는 훌륭한 문화가 있고, 단지 일본이 개방이 늦은 것은 섬이라는 지형 때문이라 하였다. 문명의 이동 경로가 중국→한국→일본에서, 이제는 새로운 학문의 도입으로 일본→조선·중국으로 바뀌었다고 기술되었다.

“일본에 붙잡혀 온 조선인 가운데 그 뒤에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일본인이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일본인에는 그 때 조선인의 자손도 상당히 있겠지요.”¹³⁾ <②-7-4> 「조선과 일본과의 교통」

‘지금 일본인 중에 조선인의 자손도 상당히 있겠지요.’라는 日鮮同祖論까지 주장하였다. 일본은 조선과의 뿔 레야 뿔 수 없는 관계라는 내용으로 지역이 매우 가까워서 옛날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생활상이 비슷하기에 서로 융합동화(融合同化)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¹⁴⁾ 일본이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당화, 합리화 하는 논리를 전개하기까지 하였다.

메이지천황은 항상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한 신경을 쓰셔서, 조선을 무엇이든 일본과 같이 편안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조선은 일본의 보호를 받고 정치를 개선하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통감을 조선에 설치하여 그들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한국 황제는 일찍이 이를 깨닫고, 만민의 행

12) 朝鮮と日本と交通を始めたのわ、今から何年前だか、わかりませんが、朝鮮の学者や職工などが、おうぜい日本え行くようになったのわ、凡そ千六百年ばかり前のことでした。その時分わ、朝鮮わ、日本よりも、よくひらけていましたから、日本でも、朝鮮の人を雇つて、色々なことを習いました。始めて日本え行つて、日本の人に漢学を教えた人わ、王仁という人でした。(이하 인용문은 필자번역으로 하며, 원문은 각주 처리한다.)

13) 日本え雇われていつた朝鮮人の内で、その後、また帰つてきた人もありますが、日本の人になつてしまつたものも、大勢ありました。ですから、今の日本人の中にな、そのときの朝鮮人の子孫もずいぶんありましよう。

14) 요시노 마코토 지음. 한철호 옮김(2004) 『동아시아속의 한일 2천년사』 책과 함께, p.304.

복을 위해서 조선을 일본제국에 병합하여 영구히 안녕을 지키고, 동양의 평화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중략) 메이지 43년 8월부터 조선은 대일본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래 한국이라 했던 것을 조선이라 고치고 통감이 천황의 명을 받들어 이 반도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¹⁵⁾ <②-8-16> 「러일전후의 日本」

결국 한국의 강제 병합은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강제가 아니고 한국 황제가 원하여 통치권을 영구히 양여 받은 것을 승낙한 결과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합방 이후 한반도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대해 한국 정부 측에서는 한국을 희망하였으나 일본 측에서는 조선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어독본』부터는 한국이란 지명 대신에 조선으로 모두 바뀌게 되었다. 본국과 식민지의 구분을 없애는 내지연장주의 전략으로, 결국 ‘한국’이라는 국가는 소멸하여 ‘조선’이라는 지역으로 된 것이다. 이 논리는 일본의 침략적이고 왜곡된 한국관을 형성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内地와 조선과는, 인종도 같고, 옛적부터 교류가 있었기에, 마침 이와 잇몸 같은 관계였습니다. (중략) 조선은 언제나 서와 북에서 괴롭힘을 당해 힘이 약하고, 평안한 시대가 적었기에 동양에서 종종 전쟁이 일어났습니다.¹⁶⁾ <②-8-16> 「러일전후의 日本」

朝鮮半島 東南의 끝에서 内地의 西北의 끝은 가깝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섬은 옛날에는, 朝鮮에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¹⁷⁾ <①-5-19><②-5-19> 「섬과 반도」

15) 明治天皇わ、つねに東洋の平和を確立することに御心配になつて、なんでも朝鮮を内地と同じ様に安心にせねばならぬと思召されました。それから一時、朝鮮わ日本の保護を受けて政治を改善することとなつて、日本からは統監を朝鮮に置いて、これを指導させることになりました。(中略) 韓国皇帝わ、早くもこの事に気付かれまして、万民幸福のためには、朝鮮を大日本帝国に併合し、永久に安寧を保つて、東洋の平和を固くするより外わないと考へられました。(中略) 明治四十三年八月から朝鮮は大日本帝国の一部となつたのです。それと同時に、もと韓国といつたのを朝鮮と改め、統監が、天皇の命を受けて、この半島を治める事になりました。

16) 内地と朝鮮とわ、人種も同じであつて、太古から交通をしておりましたから、その間は、ちょうど唇と歯のような関係でありました。(中略) 朝鮮わいつも、西や北の国からいじめられてばかり居つて、力が弱く、平安な時が少なかつたから、そのため、東洋にたびたび戦争が起りました。

그리하여 일제가 조선과 합병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조선이 일본의 일부가 되었다는 정당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런 내용은 『일어독본』보다는 『국어독본』에서 더 강력하게 서사되어 있다.

이것을 赤道라고 합니다. 赤道에서 北은 북반구이고 남은 남반구입니다. 韓國과 日本과 淸國은, 어느 쪽에 있는가 말해 보세요.¹⁸⁾ <①-7-17> 「赤道」(밑줄은 필자 이하동)

이것을 赤道라고 합니다. 赤道에서 北은 북반구이고 남은 남반구입니다. 我國과 支那는, 어느 쪽에 있는가 말해 보세요.¹⁹⁾ <②-7-17> 「赤道」

일본은 그들의 지배 영역을 넓히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공간의 영역 확장은 또한 국명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여기에서 합방 전의 『일어독본』에서는 한국과 일본이라 각각 칭했으나, 합방 후의 『국어독본』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합쳐서 我國으로, 淸國은 지나(支那)로 국명 표기가 바뀐 것이다. 이런 지배 공간에 대한 내용은 ‘조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어서 나오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러시아와 청국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나라에 비하면 대단히 작습니다만,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두 개의 커다란 나라와 하나의 강한 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일본은 작은 나라이지만 일찍이 새로운 학문을 했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²⁰⁾ <①-8-5> 「隣國」

17) 韓國の東南の端から、日本の西北の端までわ、近うございます。この日本の一番大な島わ、昔わ、韓國に續いていたのだそうです。

18) コレヲ赤道トイハマス。赤道カラ北ワ、北半球デ、南ワ南半球デス。韓國ヤ日本ヤ淸國ワ、ドツチノ方ニアルカ、言ツテゴランナサイ。

19) コレヲ赤道トイハマス。赤道カラ北ワ、北半球デ、南ワ南半球デス。我國ヤ支那ワ、ドツチノ方ニアルカ、言ツテゴランナサイ。

20) 世界で一番大なロシヤと、淸國とわ二つとも我が国の隣になつています。日本わこの二つの国に比べれば、たいそう小さいが、強い国です。ですから、韓國わ二つの大な国と、一つの強い国との間にあるのです。日本わ、小さな国ですけれども、早くから新しい學問をしたから、強い国になりました。

일본은 이웃나라로 중국 말고도 러시아를 지칭했는데,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고 동양평화의 보존에 어쩔 수 없었다고 옹호한 두 내용은 두 ‘일본어교과서’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삽화만은 약간 달랐다. 『일어독본』에 없었던 「러일전쟁 뒤의 일본」이라는 단원이 『국어독본』에서는 추가되어 일본군의 역사상 대전투였다고 강조를 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사실상 확보하기에 이르렀고, 한국 외에도 사할린 남부, 랴오둥 반도, 만주 남부로 세력을 넓혀 제국주의 국가로서 지위를 확립하였으며, 대륙침략에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강화도조약> 제1조의 “조선은 자주국이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일본은 청나라와 조선의 종속관계를 부정하면서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고, 이를 무기로 청나라와 대결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예로부터 청국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전에, 일본이 처음으로 「한국은 독립국이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데도 청국만이 옛날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독립국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속국처럼 생각하였기에 일본과 청국은 서로 좋게 생각지 않게 되었습니다.²¹⁾ <①-8-1> 「天津條約」

조선은 예로부터 청국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 전에, 일본이 최초로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 아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청국만이 옛날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속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속국처럼 생각하였기에 우리나라와 청국과는 서로 좋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²²⁾ <②-8-3> 「天津條約」

21) 韓国ワ昔カラ、清国ノ属国ノヨウニナツテイマシタガ、今カラ三十年バカリ前ニ、日本ガ始メテ、「韓国ワ独立国」ト言イダシマシタ。ソレデ、世界ノ国々デモ、皆、ソウ思ウヨウニナツテタノニ、清国デワヤハリ昔ノ通りニ思ツテイマシタ。一方デワ独立国ダト思ツテイルノニ、一方デワ属国ノヨウニシテイマスカラ、日本ト清国ワ互ニ、ヨク思ワナイヨウニナリマシタ。

22) 朝鮮ワ昔カラ、清国ノ属国ノヨウニナツテイマシタガ、今カラ三十年バカリ前ニ、我国ガ始メテ、「朝鮮ワ清国ノ属国」ト言イダシマシタ。ソレデ、世界ノ国々デモ、皆、ソウ思ウヨウニナツタノニ、清国デワヤハリ、昔ノ通りニ思ツテイマシタ。一方デワ属国デナイト思ツテイルノニ、一方デワ属国ノヨウニシテイマスカラ、我国ト清国ワ互ニ、ヨク思ワナイヨウニナリマシタ。

청일전쟁은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일본과, 종속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아시아 세계 해체를 막아보려는 청나라와의 대립 결과였다.²³⁾ 조선의 ‘독립’을 주창하는 문구로 청나라와의 책봉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일제는 『일어독본』에서는 ‘한국은 독립국이다’가 『국어독본』에서는 ‘조선은 청국의 속국이 아니다’로, 청국에 대한 조선의 입장을 일본 측에서 말한 것이다. 청일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①-8-4> 「청일전쟁」에서도 ‘조선은 독립국’으로, <②-8-4>에서는 결국 ‘중국의 속국이 아니기’에 청일전쟁을 감행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특히 청나라와 조선은 지리적으로 일본에 인접하여 그 나라의 안위가 곧 일본과 직결되기에 일본은 청과 조선 영토 보전이 동양평화 유지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하였다. 청일전쟁을 감행하던 일본의 도전은 조선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자 침략지향의 표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의 전쟁은 일본이 조선에 문명류의 개혁을 촉구하고, 자립과 스스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려는 데 있는데, 저 지나인(支那人)은 문명주의에 반대해 종종 방해할 뿐 아니라 드디어 병역을 동원해 우리에게 반항할 뜻을 표하고 더군다나, 그로부터 실마리를 풀려고 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²⁴⁾

1894년 8월 5일 일본 《시사일보》에 실린 청일전쟁에 대한 기사에서도, 결국에는 일본의 입장에서 감행하였다는 이야기로 식민지 침략과 전쟁을 합리화한 것이다.

‘일본어교과서’에서는 조선 학생들에게 근대화 된 ‘일본 알리기’에도 적극적이었다.

독일 같은 데서는 이렇기 때문에, 공원의 나무를 꺾거나 길에서 소변을 누거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집 과일을 따거나 길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²⁵⁾ <①-6-9> 「독일의 어린이」

23) 요시노 마코토 지음. 한철호 옮김(2004) 『동아시아속의 한일 2천년사』 책과 함께, p.261.

24) 요시노 마코토 지음. 한철호 옮김(2004) 전계서, p.276, 재인용.

25) ドイツあたりでわ、こんなふうですから、公園の木を折つたり、道で小便したりするものわありません。わが国でわ、人の家のくだものを取つたり、町で、大便したりする者があります。恥しいことでわありませんか。

문명국에서는 모두 이렇기 때문에 공원의 나무를 꺾거나 길에서 소변을 누거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선에서는 남의 집 과일을 따거나 길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²⁶⁾ <②-6-9> 「문명국의 어린이」

『일어독본』이나 『국어독본』 공히 분노나 오물을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울에 각국의 공사관이 들어서고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분노처리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근대국가가 되기 위해서 공중도덕을 지켜야 하는 당연한 사실을 『일어독본』에서는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나라로 독일을 지칭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어독본』에서는 독일→문명국으로, 우리나라→일본에 합병된 조선으로 바뀌어, 조선은 문명국과 거리가 먼 공중도덕 관념이 희박한 곳으로 제시되었으며, 목차도 「독일의 어린이」에서 「문명국의 어린이」로 바뀌었다. 『일어독본』에서는 문명국이거나, 근대화되어 있는 장치 설정에는 일반적이었던 것이 『국어독본』에서는 ‘후진국·미개지역=조선’이라는 직접적 표현으로 바뀌어졌다.

외국에서는 인구 2, 3만이나 되는 곳이면 공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큰 마을에는 몇 개씩이나 있습니다.²⁷⁾ <①-6-8> 「公園」

일본에서는 인구 2, 3만이나 되는 곳이면 공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큰 마을에는 몇 개씩이나 있습니다.²⁸⁾ <②-6-8> 「公園」

공원이 많은 나라로 ‘외국→일본’으로 바뀌어 서사되어 있다. 일본의 <①-4-24><②-4-25> 「上野公園」은 근대화의 상징으로, 일본에 가는 조선인들이 꼭 봐야 하는 곳으로 서사되어 있다

26) 文明国でわ、みな、こんなふうですから、公園の木を折つたり、道で小便したりするものはありません。朝鮮でわ、人の家のくだものを取つたり、道え、大便したりする者があります。恥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か。

27) 外国デワ、人口ガ二三万モアル町ニワ、公園ノナイ所ワアリマセン。オウキナ町ニワ、幾ツモアリマス。

28) 内地デワ、人口ガ二三万モアル町ニワ、公園ノナイ所ワアリマセン。オウキナ町ニワ、幾ツモアリマス。

어느 나라에서는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도 말을 사용합니다. 어느 나라의 말은 크고 상당히 강하지만, 한국의 말은 작고 약합니다.²⁹⁾ <①-5-14> 「말과 소」

내지에서는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도 말을 사용합니다. 내지의 말은 크고 상당히 강하지만, 조선의 말은 작고 약합니다.³⁰⁾ <②-5-14> 「말과 소」

『일어독본』에서는 ‘어느 나라’라는 애매한 무지칭 표현이 『국어독본』에서는 ‘내지’로 바뀜으로 일본 말(馬)의 우수성과 조선 말(馬)의 열악성을 상대적으로 서술하였다. 『국어독본』에서는 노골적으로 강하고, 좋은 것에는 내지(일본)와 관련된 것으로 서사하였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시설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일어독본』(<①-6-5> 「洪水의 原因」)의 한국에는 제방이 없고 나무 부족으로 홍수가 잦은 곳으로 설정하였는데, 『국어독본』(<②-6-5> 「洪水의 原因」, <②-6-7> 「森林 2」)에는 모두 조선으로만 설정 서술되어 있다.

3.2. 삽화로 제시된 영토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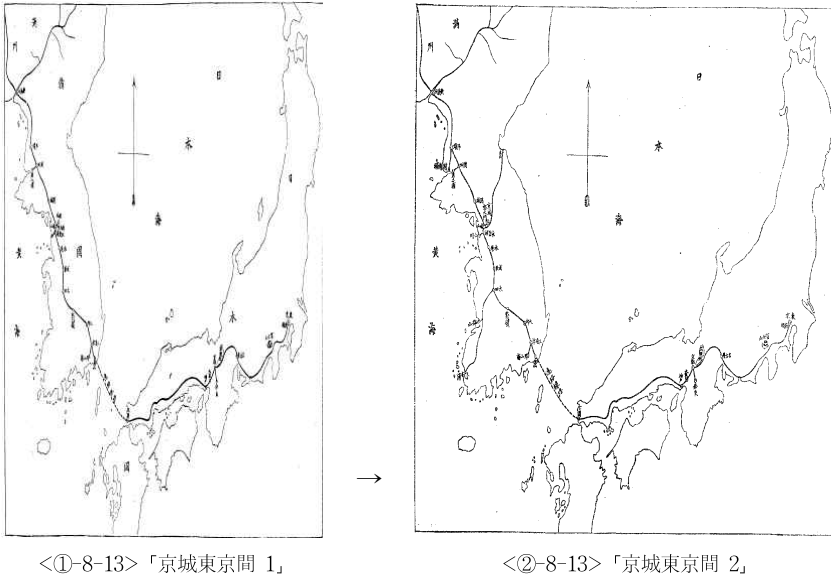
『일어독본』의 권1~3에는 삽화가 전혀 없다가 권4부터 삽화가 실렸고, 『국어독본』은 권1부터 삽화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地理’에 관련된 삽화는 <권5>부터 실려 있다.

‘일본어교과서’에서는 언제나 경성(京城)과 도쿄(東京)를 연결시키려고 하였는데, 아래 삽화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암시하고 있다. ‘일본어교과서’에는 기차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당시 철도부설을 담당했던 일본 덕분에 조선이 개화되어 문명의 혜택을 누린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표상하고 있다. 『일어독본』과 『국어독본』의 삽화에서 도쿄를 가는 이동 노선이 약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29) アル国デワ、田地ヲ耕シタリ、重イ荷物ヲ運ダリスル時ニモ、馬ヲ用イマス。アル国ノ馬ワ大クテ、ズイブン強イケレドモ、韓国ノ馬ワ小クテ弱ウゴザイマス。

30) 内地デワ、田地ヲ耕シタリ、重イ荷物ヲ運ダリスル時ニモ、馬ヲ用イマス。内地ノ馬ワ大クテ、ズイブン強イケレドモ、朝鮮ノ馬ワ小クテ弱ウゴザイマス。

<삽화 1> 경성과 도쿄와의 이동 경로



<①-8-13> 「京城東京間 1」

<②-8-13> 「京城東京間 2」

위의 삽화에서 『일어독본』 <①-8-13> 「京城東京間 1」에서는 조선-일본간의 동선은 경부선 철도의 노선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국어독본』 <②-8-13> 「京城東京間 2」에서는 호남선과 경원선 등 더욱 복잡해진 철도와 여러 곳에서 일본을 갈 수 있는 동선을 표기하고 있다. 『일어독본』에서는 「한국」, 「일본」이란 국명이 적혀 있어 국제선 이동을 의미하였지만, 『국어독본』에서는 지명만 표기되어 국내선 이동을 의미하고 있다.

『국어독본』에서는 합병된 일본의 한 지역으로만 소개되는 조선에서, 경성보다는 도쿄로 이동하는 동선의 주요 기점인 부산이 더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조선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부산은 内地 이동에 가장 편리한 동선의 항구로 서사되어 있다. 이외에도 인천에서 출발하면 시모노세키(下関)에 도착할 수 있으며, 시모노세키에서는 다른 일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서술되어 있다. 항구 역시 일본 쪽이 자세히 소개 되어 모든 것이 일본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베(神戸)항에는 큰 군함이랑 상선이 많이 정박하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을에도 새로운 집이 많아서, 대단히 멋있습니다.³¹⁾ <①-8-14> <②-8-14> 「京城東京間 1.2」

‘일본어교과서’에서는 지리 부분을 중요시 여겼으므로 학생들에게 지도 읽는 법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일어독본』에서는 도쿄에 있는 한 서적회사로 지도를 주문하는 단원 <①-7-10> 「서적의 주문」이 나오기도 한다. <②-5-12> 「바다와 육지」에서는 지구의를 가지고 일본을 설명하는 선생님이 나온다.

여기에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한 쪽은 넓은 육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에 붙어 있고, 한 면만이 넓은 육지에 붙어 있는 육지를 「반도」라 합니다. 이것은 일본입니다. (중략) 이처럼 바다에 둘러 쌓인 육지를 ‘섬’이라 합니다.³²⁾ <①-5-19> 「섬과 반도」

이것은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内地는 많은 육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육지는 모두 바다로 둘러 쌓여 있습니다. 内地와 조선 이외에도 대만과 사할린과 그 외에 많은 섬을 포함해서, 일본이라 합니다.³³⁾ <②-5-19> 「섬과 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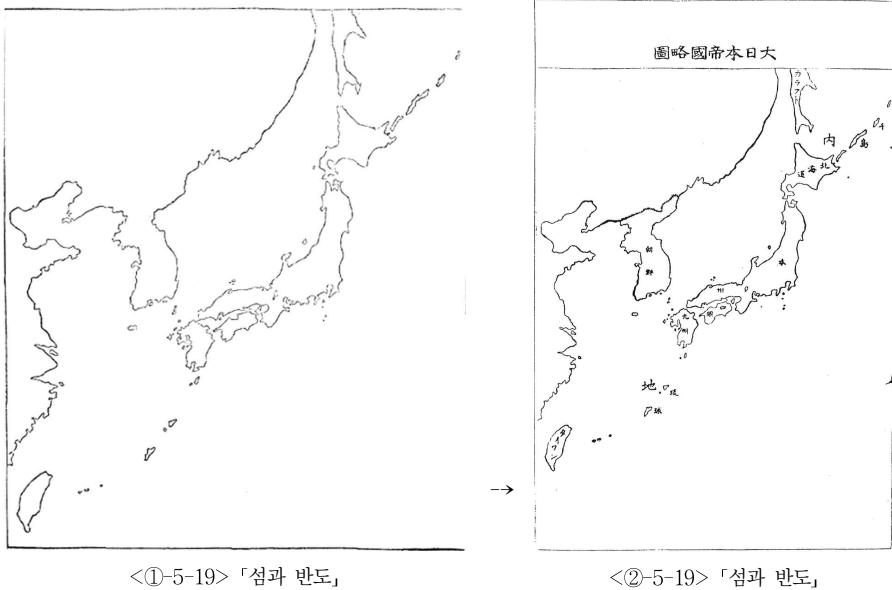
『일어독본』에 나와 있지 않은 지명이, 『국어독본』에는 지도 삽화가 고학년 교재일수록 많아지는데, 일본과 조선, 중국의 공간 배치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31) 神戸ノ港ニワ大ナ軍艦ヤ、商船ガ沢山碇泊シテイマシタ。私ワアンナニ沢山、船ノ集ツテイルノヲ、始メテ見マシタ。町モ新シイ家ガ多クテ、タイソウ立派デス。

32) ここにあるのは韓国です。三方わ海で、一方わ広い陸地に続いています。このように、三方が海にかこまれて、一方ばかり広い陸地に続いている陸地わ、「半島」というのです。これわ日本です。(中略)このように、海にかこまれている陸地わ、「島」というのです。

33) ここわ我国の地図です。内地わ沢山の陸地に分れています。その陸地わみな海に囲まれていています。内地と朝鮮のほかには台湾とカラフトとその他沢山の小さな島を合せて、日本というのです。

<삽화 2> 지도로 본 삽화 변화



위의 삽화에서 조선지도 속의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 동해가 일본의 영역임을 암시하고 있다. 지도를 가지고 설명함으로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일본의 영토 안에 조선이 들어있음을 각인시키고 있었다. 『일어독본』의 지도 삽화에는 아무런 지명이나 국명이 적혀 있지 않고 섬과 반도의 이미지만 표현하고 있지만, 『국어독본』에서는 <大日本帝國略圖>라고 써어 있으며, 대만, 북해도, 사할린 등과 일본에 합병된 지방 조선반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삽화2>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①과 ②에서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는 3부와 43현이 있습니다. 3부라 하는 것은 도쿄와 오사카와 교토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타이완과 사할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³⁴⁾ <①-7-4> 「日本の府懸」

34) 日本ワ三府ト四十三県ニ分レテイマス。三府トイウノワ、東京ト大阪ト京都ノコトデス。ソシテ、北海道ト台湾ト樺太(カラフト)ワ、別ニナツテイルノデス。

내지에는 3부와 43현이 있습니다. 3부라 하는 것은 도쿄와 오사카와 교토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와 朝鮮, 타이완과 사할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³⁵⁾ <②-7-4> 「内地의 府懸」

『일어독본』에서는 「日本の 府懸」이란 목차로, 홋카이도와, 타이완과 사할린은 3부와는 별도로 되어 있다 하였고, 『국어독본』에서는 「内地의 府懸」으로 바뀐 목차로, 일본의 영역공간으로 조선이 서사되어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알려 조선의 행정기관을 통해 조선 대중 개개인에게까지 통제권이 있음을 알렸다. 조선과 대만에 총독부 설치로 일본 식민지배의 범위를 암암리에 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 일본제국의 지도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섬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도가 있습니다. 섬 안에 가장 큰 것은 혼슈(本州)이고, 북쪽에 있는 것이 홋카이도, 남쪽에 있는 것이 시코쿠(四国)와 규슈(九州)입니다. 타이완(臺灣)은 훨씬 남쪽에 있는 섬이고, 사할린(樺太)은 홋카이도의 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朝鮮은 한쪽만 육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半島입니다. 그리고 남쪽 끝에서 内地는 가깝습니다.³⁶⁾ <②-5-19> 「대일본제국」

『일어독본』에 실린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목차만 달리하여 설명하였다. 조선은 일반적인 지형과 기후만을, 일본은 섬나라로 서술하였다. 『국어독본』에 실린 지도에서는 일본은 혼슈를 비롯한 네 개의 큰 섬들과 식민지 대만과 조선까지 일본의 지배공간으로 지도에 표시하여 서사하였다.

혼슈를 비롯한 네 개의 큰 섬과 조선과 대만을 포함한 큰 영토 일본영역의 확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아동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쇄니 시킨 것이다. 『일어독본』에서 『국어독본』으로 변화된 삽화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 확장 의도가 더욱 적극적이

35) 内地ニワ三府ト四十三県ガアリマス。三府トイウノウ、東京ト大阪ト京都ノコトデス。ソシテ、北海道ト朝鮮ト台湾ト樺太(カラフト)ワ、別ニナツテイルノデス。

36) ここわ我が大日本帝国の地図です。ごらんなさい、多くの島があります。又一つの半島があります。島の中で、一ばん大きいのが本州で、その北にあるのが北海道、南にあるのが四国と九州です。台湾はずっと南の方の島で、樺太(からふと)は北海道の北にある島です。朝鮮は一方だけ陸につづいているから、半島です。そうして南のはしから、内地えは近うございます。

있음을 알 수 있다.

3.3. 數에 함축된 ‘지리’적 변동

근대 형성기에 있어서 시간은 공간과 함께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이는 곧 근대 이전의 인간이 지니고 있던 가치관이나 습성을 배제하고 새로운 환경, 특히 산업사회의 자본주의적 질서에 부합하는 인간의 탄생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기에 배치된 새로운 공간의 배치는 물론, 인위적인 시간의 질서에 인간을 적용 시킴으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³⁷⁾ 『일어독본』과 『국어독본』에서는 ‘일본 알리기’로 數의 변화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경성에서 도쿄까지 몇 일간 걸립니까?³⁸⁾ <①-4-23>

경성에서 도쿄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³⁹⁾ <②-4-23>

『일어독본』에서는 경성에서 도쿄까지의 ‘몇일’ 걸리냐고 국제선 개념으로 질문했고, 『국어독본』에서는 국내선 이동으로 ‘몇 시간’으로 단축 표현하여, 『일어독본』에서보다 경성과 도쿄를 동일 국가의 지방으로 인식케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조선과 일본의 동선을, ‘몇일’과 ‘몇시간’으로 비유하여 국가이동에서 지방이동으로 변용하고 있다.

나는 어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경성에서 도쿄까지는 천마일 이상이나 됩니다만, 기차와 기선으로 가면 불과 60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중략) 그 기차는 오후 7시경에 초량에 도착했습니다.⁴⁰⁾ <①-8-13> 「京城東京間 1」

나는 어제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경성에서 도쿄까지는 천마일 이상이나 됩니다만, 기차와 기선으로 가면 불과 54시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중략) 그 기차는 오후 7시경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⁴¹⁾ <②-8-13> 「京城東京間 2」

37) 김순전 외(2004) 『수신하는 제국』 제이앤씨, p.142.

38) 京城カラ、東京マデ、何日間、カカリマスカ。

39) 京城カラ、東京マデ、何時間、カカリマスカ。

40) 私ワ先日東京ニ参リマシタ。京城カラ東京マデワ千マイル以上モアリマスガ、汽車ト汽船デ行ケバ、ワズカ六十時間デ行ケマス。(中略) ソノ汽車ワ午後ノ七時頃ニ、草梁エ着キマシタ。

경성에서의 도쿄까지 국제이동이라 할 수 있는 시간이 60시간 → 54시간으로 단축되어 시간의 이동경로가 짧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기차가 큰 역할을 하였다.

1900년도에 근대사회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철도시대가 열려, 서울에서 인천을 한 시간 안에 달리니 생활과 감각도 변하였다. 철도는 도착과 출발시간이 정확하기에 산업화사회의 긴박한 시간감각을 대표하는데, 특히 움직이는 열차운행은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습관을 바꿔놓기도 하였다. 분, 초 단위로 움직이는 인위적인 시간개념이 새로운 근대 질서로 등장하기도 했다.

승객: 인천까지 3등석 얼마입니까?/매표원: 1원 65전입니다.⁴²⁾ <①-4-22>

승객: 인천까지 3등석 얼마입니까?/매표원: 75전입니다.⁴³⁾ <②-4-22>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3등석 가격이 『일어독본』에는 1원 65전이고, 『국어독본』에는 75전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기차요금이 내려간 것은 기차를 이용하는 사람과 편수가 많아졌으며, 기차와 같은 문명의 편리함을 홍보하고 있다. <①-5-21, 23> <①-1-25>에 나오는 인천은 1883년 ‘제물포’로 개항하였는데, 일본 국제 교역의 중요 항구로 성장하였다. “여기는 인천항입니다. 큰 배가 항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②-5-22> 「仁川港」이 있는데 의도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일어독본』에는 제목이 삭제되었고, 내용만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또한 일본은 병참을 수송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에서 경성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한반도 총관철도를 단시일에 건설했다. 일본 오사카, 고베를 통해 시모노세키(下関)로 실어온 물건은 부산에서 경부 경의선과 통해 움직였기에, 철도는 조선과 일본과의 수송에 큰 몫을 했었다. 합병 후 한국에 대한 통치방법에서 “철도 및 통신에 관한 예산은 총독부 소관으로 편입되었으며,”⁴⁴⁾ 철도로 생활이 편리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쌀이 실려 나가는 것만 손쉬워진 게 아니냐는

41) 私ワ先日東京エ参リマシタ。京城カラ東京マデワ千マイル以上モアリマスガ、汽車ト汽船デ行ケバ、ワズカ五十四時間デ行ケマス。(中略) ソノ汽車ワ午後ノ七時頃ニ、釜山エ着キマシタ。

42) 田舎の人。仁川まで、三等、いくらですか。/出札係。一円六十五銭です。

43) 田舎の人。仁川まで、三等、いくらですか。/出札係。七十五銭です。

44) 『日本外交文書』 43권, p.660.

비판도 있었다. ‘일본어교과서’에는 조선에서 운송하는 기차와, 일본과 조선을 연결시키는 연락선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시모노세키(馬関)와 부산 사이를 다니는 기선은 2척 있습니다. 1척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고, 1척은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옵니다.⁴⁵⁾ <①-4-1>

시모노세키(下関)와, 부산 사이를 다니는 기선입니다. 시모노세키와 부산간을 다니는 기선은 4척 있습니다. 2척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고, 2척은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옵니다.⁴⁶⁾ <②-4-1>

시모노세키 표기 및 기선을, 『일어독본』에서는 ‘馬関’과 2척으로, 『국어독본』에서는 ‘下関’과 4척으로 증편하였다. 기선이 2편에서 4편으로 증편되었다는 것은 일본과의 왕래가 2배 이상 늘었으며,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동선이 더욱 간편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일어독본』에서는 부산에서 경성까지의 이동 경로가 1장의 삽화인데, 『국어독본』에서는 2장으로 확대 설정되어 있다.

日本은 東北에서 西南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日本에는 섬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섬이 5개 있습니다. 북쪽부터 차례로 말해보면 北海道, 本州, 四国, 九州, 臺灣입니다.⁴⁷⁾ <①-7-3> 「日本」

日本은 東北에서 西南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日本에는 섬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섬이 6개 있습니다. 북쪽부터 차례로 말해보면 樺太, 北海道, 本州, 四国, 九州, 臺灣입니다.⁴⁸⁾ <②-7-3> 「我國」

45) 馬関ト、釜山トノ間ヲ、通ウ汽船ワ、二艘、アリマス。一艘ワ、釜山カラ、馬関エ、行キ、一艘ワ、馬関カラ、釜山エ、来マス。

46) 下関ト、釜山ノ間ヲ、通ウ汽船デス。下関ト、釜山ノ間ヲ、通ウ汽船ワ、四艘、アリマス。二艘ワ、釜山カラ、下関エ、行キ、二艘ワ、下関カラ、釜山エ、来マス。

47) 日本ワ、東北カラ西南エ、ナガク延ビテイル国デス。日本ニワ、島ガ、カヅエラレナイホド、沢山アリマス。ソノ中デ、大ナ島ガ、五ツアリマス。北ノホウカラ、順ニ言ツテミマスト、北海道、本洲、四国、九州、台湾デス。

48) 我國ワ、東北カラ西南エ、ナガク延ビテイル国デス。我國ニワ、島ガ、カヅエラレナイホド、沢山アリマス。ソノ中デ、大ナ島ガ六ツアリマス。北ノホウカラ、順ニ言ツテミマスト、樺太、北海道、本洲、四国、九州、台湾デス。

일본은 영토 표현에 있어서, 『일어독본』에서는 다섯 개의 큰 섬으로, 『국어독본』에서는 사할린(樺太)을 추가하여 여섯 개의 섬으로 확장시켜 표현한 것이다. ‘사할린과 조선의 일본화’를 통해 일본 영역의 숫자를 확대하여 동양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난 것이다. 『일어독본』보다 『국어독본』에서 교통수단의 증편과 이용객의 증가로 시간은 단축되었고 경비가 줄었음을 암시하여, 조선과 일본의 동선은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이동의 수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일본어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숫자의 변화도 있지만, 단순하게 數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도쿄는 일본의 수도로, 인구는 거의 2백만이나 됩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삼백년쯤 전까지는 거의 초원이었습니다만 점점 개발되어 지금과 같은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⁴⁹⁾ <①-7-14> <②-7-12> 「東京」

경성은 조선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人口는 대략 30만 정도입니다. 시내 주변에는 옛 성벽이 있고, 지금도 문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특히 큰 것이 남대문과 동대문입니다. 本町通은 주로 내지인이 거주 하는 곳으로 대단히 변화합니다. 시내에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하여 관서·학교·병원·은행·회사 등의 큰 건물이 있습니다.⁵⁰⁾ <②-5-27> 「京城」

인구에서 도쿄의 200만과 경성의 30만이라는 數를 내세워 도쿄와 경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물론 도쿄에 대한 소개는 두 ‘일본어교과서’에 일본의 수도라는 같은 내용으로 나오지만, 『국어독본』에서 천황폐하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욱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성을 조선 안에 있는 일본의 큰 도시의 하나로, 조선총독부가 있는 일본인도 거주하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쿄는 경성과 달리 한 단원을 통째로 사용하면서, 발전되고 변화한 모습으로 백성들이

49) 東京わ、日本の首府で、人口わ、ほとんど二百万もあります。アジアでわ、一番大な都会です。三百年ばかり前までわ、丸で草原でありましたが、だんだん開けて、今のような大な都会になつたのです。

50) 京城ハ朝鮮總督府ノアル所デ、人口ハ凡ソ三十万ホドアリマス。市街ノマワリニハ、昔ノ城壁ガアツテ、今モ門ガイクツカ残ツテ居マス。其ノ中デ、コトニ大キナノハ、南大門ト東大門トデス。本町通(ホンマチドウリ)ハオモニ内地人ノ住居スル所デ、大層繁華デス。市内ニハ、朝鮮總督府ヲ始メ、官署・學校・病院・銀行・会社ナドノ大キナ建物ガアリマス。

마음 놓고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시설이 완비된 도시, 교통이 발달된 근대도시로 서사하였다.

IV. 결론

지금까지 『普通學校學徒用日語讀本』과 『訂正普通學校學徒用國語讀本』의 내용을 분석하여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地理’ 내용적으로 어떻게 표상되었는지 고찰해 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國名の 변화였다. ‘우리나라 사람’을 ‘조선 사람’으로, ‘일본’을 ‘내지’로, ‘한국’을 ‘조선’으로 표기 하였다. 조선은 이제는 국명이 아닌 일본의 한 지방으로만 표현될 뿐이었다. 또 한국과 일본을 한꺼번에 我國으로, 淸國은 支那로 개칭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자국의 영토 공간을 내지와 조선 그 외의 대만, 사할린까지 포함시켜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에 목차만 바뀌어 나왔으며, 이것은 공간영역의 확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가 많이 등장을 하였는데, 두 나라의 관계는 일본이 급격히 꺾고 있는 세계관의 변화로, 두 나라와의 전쟁은 결국 타국의 압박을 받은 한국에게 동양의 평화를 찾아주기 위함으로 서사하고 있었다. 『국어독본』에서 더 철저히 식민지화에 동화되도록 ‘일본과 한국’을 ‘내지와 조선’ 혹은 ‘내지와 반도’로 두 개의 나라가 합병으로 하나 된 ‘일본 알리기’에 주력하였다.

일본어교과서에서 지명도 자주 나왔는데 가장 큰 비중으로 나온 도교는 엄청난 인구수와 천황이 존재하는 일본의 수도라고 『국어독본』에서 반복하여 서사하고 있다. 경성은 조선총독부가 있는 하나의 지방으로 나왔으며 오히려 부산이나 인천이 일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항구도시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한 삼화와 함께 경성과 도쿄간의 거리이동을 설명하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라 하고 있었다. 『일어독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일본의 지명이 『국어독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領土의 부분은 주로 삼화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확장 영역이 늘어남을 알 수가 있다. 학생들에게 일본의 영토 안에 조선과 대만이 들어있

음을 지도를 가지고 확실하게 각인시켜 일제의 식민지 확장 의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삽화는 『일어독본』에서 『국어독본』으로 정정되어 편찬 되었을 때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국토의 확장과 함께 세계 속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라는 교육으로 일본을 강조하는 모습으로 변화였다.

또한 數의 변화로 지리적인 교육을 시켰다. 철도 개설로 이동시간이 단축되었으며, 승객의 증가와 증편으로 요금이 내려갔으며, 국제선에서 국내선 동선의 변화로 일본과의 왕래가 수월해졌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리 교육부분이 많이 수록된 것은 ‘교육침략 예비시대’에서 ‘동화교육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편찬된 『일어독본』과 『국어독본』에서 식민지정책의 접근의 강화가 표상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일본 알리기’와 ‘식민지 조선 만들기’의 교육정책에 ‘일본어교과서’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순진 외(2004) 『수신하는 제국』 제이앤씨.
 _____ (2009) 『초등학교 일본어독본』 제이앤씨.
 朴英淑(2000) 「解題 第一期 『普通学校国語讀本』について」
 조연순 외(2002) 『한국근대초등교육의 발전』 교육과학사.
 요시노 마코토 지음, 한철호 옮김(2004) 『동아시아속의 한일 2천년사』 책과 함께.
 호사카 유우지(2002) 『일본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 제이앤씨.
 高橋浜吉(1927) 『朝鮮教育史考』京城, 帝国地方行政学会.
 <매일신보>, 1910년 11월 2일. 2면.
 『日本外交文書』 43권.

- ❖ 투고일 : 2010. 6. 30.
- ❖ 심사일 : 2010. 7. 14.
- ❖ 심사완료일 : 2010. 8. 2.